



프라스틱 排水基層板의 發明

M·I·T企業(株) 朴仁求 사장



〈朴仁求 사장〉

『저는 企業人일뿐 아직 發明人은 아닙니다.』

단 한건의 發明을 企業化하여 짝 짝한 재미를 보고 있는 M·I·T企業(株) 朴仁求사장은 發明人이라는 名稱은 아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겸손해 했다.

M·I·T企業(株)도 發明品 生産業體가 아니고 體育시설을 施工하는 業體이다. 發明品은 전량 下請生産하고 있다.

朴사장이 프라스틱排水基層板을 發明하게 된 동기는 ▲제례식 방식의 자갈排水基層처리 방법은 施工上の 문제점과 균일한 排水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排水처리 壽命이 짧다는 단점을 해결함과 함께 ▲옥상정원과 같이 構造物上的 녹지공간을 造成하고자 할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下重부담을 해결할 目的이었다.

朴사장은 이 發明을 위해 우선 종래의 자갈排水基層의 문제점을 객관적 實驗에 의해 파악한 후,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生産性 및 輕量性을 감안해서 射出性 型製品에 의한 조제법임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또 試製品 生産에 앞서 開發하고자 하는 製品의 型態과 構造가 거의 일치하는 素材로 일정한 면적의 實驗場을 만든다음 설치 施工時의 여러가지 조건들을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부여하면서 研究한 결과 예상했던 機能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試製品 開發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試製品이 生産된 것은 87년 4月. 結果는 실로 만족할 만 했다.

이는 87년 5月부터 本格的인 生

産에 들어가 市販되고 있는 製品에 아직까지 결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입증해 주고 있다.

『절차 심각해져가는 도시공간의 녹지공간 확보문제에 의해 기존 또는 신축건물의 옥상을 이용해 옥상정원으로 活用하게 됨에 따라 매우 效果의인 製品으로 評價받고 있지요.』

朴사장에 따르면 이 製品은 設備投資나 資本이 불필요하며 언제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현재까지 先進外國에서도 이 製品과 같은 機能이나 構造를 가진 製品이 開發되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아 市場까지 독점할 수 있으며, 땅속에 묻혀서 사용되는 製品인 관계로 수요자로부터 까다로운 요구나 크레임 發生이 없어 더없이 좋은 發明이라고 했다.

朴仁求사장. 그는 요즘 本業이 바빠 계속 發明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던 꼭 필요한 發明을 하여 發明企業人이 되겠다는 포부를 펼쳐 보였다. <吳>